

SBS 수목드라마에서 나타난 등장인물 관계분석 -그레마스 행위소 모델 중심으로-

임운주
예원예술대학교

A Analysis on the Relations among Characters shown in SBS Wednesday and Thursday Dramas -Focusing on the Greimas' Actantial Model-

Woon-Joo Lim
Yewon Arts University

요 약 이 연구는 SBS 수목드라마에서 나타난 등장인물의 행위들에서 만들어 내는 다양한 관계들이 어떻게 소통되고 있는지를 그레마스 행위소 모델을 통해 의미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주체와 대상의 관계에서 주체가 가지고 있는 결핍구조를 분석하여 이러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살펴본다면 서로 다른 장르에서 나타나는 드라마 속의 등장인물 관계를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 이를 해석해보면 같은 사건에서 시작된 발신된 주체와 대상의 결핍 구조는 다르게 나타난 반면, 우연한 사건으로 인한 주체와 대상은 같은 결핍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주체와 발신자의 관계에서는 주체보다 나약하고 보호 받아야하는 불쌍한 인물들로 설정되었을 때는 극중 역할이 제한적이지만 발신자가 주체에게 적대자로서의 역할을 같이하는 구조에서는 주체보다 권위적이었다. 세 작품 속에서 나타난 반대자들은 결국 주체와 대상에게 또 다른 협력자들로 변절하며 사건 해결에 도움을 주며, 불행해지기보다는 한결 더 성숙해지는 경향이 있었다.

주제어 : 캐릭터, 행위, 관계, 욕망, 결핍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analyze how a variety of relations created by the actions of characters shown in SBS Wednesday and Thursday dramas are communicated by using Greimas' actantial model. This study analyzed the sparsity structure that the subject have in relations between the subject, and a desire structure that the subject have will appear if we look into the interactive and binding relation between the subject and the object in the process of solving those problems. In the relations between the subject and originator, the role of originator in the dramas was limited when his or her character is established as a poor character weaker than the subject and the one to be protected, whereas he or she was more authoritative than the subject in the structure that originator shares a role as an antagonist. Objectors shown in three works gave help to the solution of incident after all by turning coat as another cooperators of the subject and the object, showing a tendency to reach maturity rather than being unhappy.

Key Words : Character, behavior, relationships, desire

* 본 논문은 2014년 예원예술대학교의 학술연구비에 의하여 지원되었음

Received 9 November 2014, Revised 15 December 2014

Accepted 20 January 2015

Corresponding Author: Woon-Joo Lim (Yewon Arts University)

Email: redprism@hanmail.net

©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ISSN: 1738-1916

1. 서론

드라마는 대중에게 쉽게 동화되어진다. 이는 극중에 등장하는 현실적인 캐릭터들이 행동이나 대사로서 대중의 감성을 자극하는 것이다. 대중에게 다가가는 드라마가 감성을 자극하는 것은 대중들이 현실에서는 볼 수 없는 판타지부터 바로 옆집에서 일어날 것 같은 소재를 다루는 다양성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매우 광범위한 장르를 포함하고 있는 드라마는 법정, 전쟁, 멜로, 로맨틱 코미디, 사이코, 의학, 판타지, 사극, 청소년, 막장 드라마 등 수없이 많은 다양한 하위 종류 군이 존재한다. 이러한 분류는 당대의 사회 각 계층과 그들이 이루어내는 생활문화 속에서 정치 경제 사회적 상황과 당대인의 가치관과 삶의 방식, 유행, 취향들을 파악할 수 있게 한다. 그러므로 드라마는 대중들에게 사회에서 추구하는 욕망과 대중들의 욕망의 발로인 것이다[1]. 이러한 현상들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특히 등장인물들 사이의 관계를 속에서 뚜렷하게 나타난다. 그들은 드라마 내러티브 속에서 사회의 규칙과 관습 등을 규정하고 종합적인 의미작용을 하기 때문이다. 이에 등장인물들의 행위는 캐릭터의 성격과 특징을 구체화시키며 서로에게 어떠한 역할과 작용을 하는지에 대한 의미 생성 경로를 나타낸다. 따라서 이 연구는 등장인물들의 관계 속에서 의미 생성 경로를 분석하여 의미를 해석하고자 한다. 분석 틀로는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발신자-수신자, 주체-대상, 협조자-반대자라는 3개의 대립 항으로 묶고 그 관계 속에서 서사체의 진행을 관찰하여 최종적으로 도식화하는 행위자 모델인 그레마스(Greimas, A, J) 기호학을 사용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등장인물들 사이의 관계를 통해 의미 작용을 비교 분석하고자 하였기에 구조 기호학 접근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2].

이 연구의 분석 모델은 SBS에서 방영된 <상속자들> 최고시청률 23.5%, 평균 시청률 15.9% <주군의 태양> 최고시청률 21.1%, 평균 시청률 17.9% <너의 목소리가 들려> 최고시청률 26.2%, 평균 시청률 19.1% [3]로 선정하였다. 정덕현 대중문화평론가는 “SBS는 개국 초기부터 드라마 기획팀을 꾸려 탄탄한 라인업을 구상해왔고 새로운 장르를 개척하고 복합장르 드라마에 도전”[4]하였다고 했으며 또한 SBS는 너의 목소리가 들려’의 후속 드라마 ‘주군의 태양’은 여름시즌에 귀신을 소재로 소지

섭-공효진이라는 황금라인을 구축하며 흥행을 이루었고, ‘상속자들’은 김우빈, 박신혜, 이민호 등 젊은 층의 다양한 배우들을 재발견함으로써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하였다[5]. 최근 대중적인 인기를 끈 드라마에 유독 SBS에서 방영된 드라마가 많았고 특히 수목드라마에서 다양한 소재와 캐릭터가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에 SBS에서 성공한 드라마와 시청률을 고려해서 세 편의 작품을 선정하였다. 각각 다른 소재와 캐릭터에서 나타난 특징을 그레마스의 기호학적 틀 안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2. 그레마스 기호학의 이론적 고찰

2.1 행동자모델

2.1.1 행동자 개념정의

행동자(actant)는 전통적인 인물, 혹은 극인물의 개념을 대체한다. 이는 인간을 포함하여 동물이나 무생물체인 물건, 추상적인 개념들까지도 아우를 수 있는 것이다. “행동자란 어떤 자격이건 또 어떤 방식으로든 간단한 구상체(figurant)와 가장 수동적인 방식으로 과정에 참여하는 존재들이나 사물들을 말한다.”고 테니에르는 정의하고 있다. 행동자 개념은 극 중에서 등장하는 캐릭터인 간형, 동물형, 식물형, 사물형, 혼합형등 그것이 인간들뿐만 아니라 동물, 의인화되어진 물건 또는 상상의 개념들까지도 아우를 수 있다[6].

2.1.2 행동자 모델의 기본요소

1) 주체(sujet)와 대상

드라마에서 주체는 행위를 수행 할 수 있는 존재, 행동적 원칙을 지시하는 인물이다. 주체는 행동하는 인물이며 그 행동의 본질은 주체를 포함하는 관계 속에서 나타난다. 주체는 가치 대상과의 관계에서는 상태주체, 즉 규정하는 가치들의 본질과 행동하는 방식으로 나타나며, 변형 관계에 의해 특정 지어지는 정신적이며 행동적인 주체로도 나타난다. 이러한 주체는 다양한 행동자적 위치를 차지하여 다양한 관계 속에서 주체의 정체성을 표현한다. 하지만 대상은 주체와의 관계 속에서 정의 되어질 수 밖에 없다[8]. 주체에 대한 대상으로 나타나는 것은 주체의 욕망과 관련되어진다. 항상 주체는 욕망을 추구하는 존재이며 이러한 과정에서 대상과 주체는 관계가

성립되어 결속적인 관계이면서 서로 상호 전제의 관계 속에서 양방으로 연결된다.

2) 발신자와 수신자

프롭은 “발신자는 발령자의 행동영역에 속하는 반면, 수신자는 일반적으로 주체-주인공”이라고 한다[2]. 발신자와 수신자의 관계를 살펴보면 사역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는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하도록 시키는 것으로 항상 주인공에게는 피해를 복구하거나 결핍상태를 해소하는 임무가 부여된다. 그레마스는 이러한 관계를 사역동사적 의미(시킨다)와 수여 동사적 의미(준다)를 계약의 관계로 규정하고 발신자를 담화 속에 등장하는 가치체계의 관리자라고 한다. 즉, 조작하는 발신자를 최초의 발신자로, 제재와 상벌을 심판하는 발신자를 최후의 발신자로 본다. 그러므로 발신자는 수신자에 비해서 상위 지배적 관계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치체계 안에서 발신자와 수신자측운 욕구에 대한 원인을 설명해주며 추상적인 이념에 연관된다[9]. 주체가 어떠한 행동을 하게 되는 과정에서 보면 수신자와 주체는 일치한다. 이러한 행동하는 주인공은 욕망의 대상과의 관계에서 주체로 정의 할 수 있으며, 발신자와의 관계에서는 수신자가 되는 것이다. 발신자는 수신자를 평가하게 되고 이 수신자는 주체로서 자기가 원하는 대상에 일정한 가치를 부여하여 행동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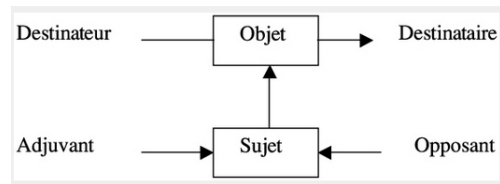
3) 원조자와 대립자

주체와 대상에 관련해서 나타나는 관계로 원조자는 주체가 욕망하는 것을 쟁취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방향을 설정하여주기도 하고, 문제를 쉽게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는 기능을 한다. 대립자는 이와는 반대로, 욕망의 실현에 난관을 만들어 내거나 주체가 대상과의 소통에 어려움을 겪게 방해물들을 만들어내는 기능을 한다. 들이다. 이러한 관계는 각각 원조자와 대립자라는 이름 아래 두 개의 구분되는 행동자로 간주할 수 있다[2].

2.1.3 행위소 모델

행위소 모델은 그레마스가 프롭의 31가지 기능 도식을 수정, 보완하면서 서로 짝지을 수 있는 여러 기능의 쌍을 도출한 것이다. 그는 이 31가지기능들의 영역으로부터 행동자의 영역으로 분류하여 프롭의 불변소 목록과

행동자 연극상황 목록으로부터 행동자 모델을 구성하였다[6].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발신자(Destinateur)-수신자(Destinataire), 주체(sujet)-대상(objet), 협조자(adjutant)-반대자(opposant)라는 3개의 대립 항으로 묶고 그 관계 속에서 서사체의 진행을 관찰하여 최종적으로 도식화 한 것은 다음과 같다,



[Fig. 1] Actantial model [10]

이 행위소 모델은 등장인물들의 관계구조를 도식화하여 부분적으로 전체적으로 분석하기에 적합하다. 세부적으로 하나의 대사에서부터 전체에 상정되어있는 이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구조를 살펴 볼 수 있는 도구이다. 등장인물에서 관계 구조를 살펴볼 경우, 작품 속에서 나타나는 등장인물들의 기능과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이것은 작품의 진행방향과 주체와 대상, 그리고 원조자 대립자들에게 나타나는 욕망들을 전체적으로 도식화하게 하는 여섯 기능자로 분류된 행위소 모델은 화살표 방향에 따라 이야기를 진척시키며 주체의 대상 탐색을 하게 한다[1].

3. 행위소 모델을 통한 등장인물 분석

2.1 상속자

1) 주체(sujet)와 대상

<상속자들>에서 원하는 욕망을 이루어가는 주인공은 차은상이라는 캐릭터이다. 차은상은 언니에 대한 로망과 현실도피적인 이유로 미국에 도망치듯 오지만 언니의 배신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김탄과 같이 지내게 된다. 유학이 아닌 유배로 외로움에 처한 돌아갈 수도 돌아가지 않을 수도 없는 김탄에게 돌아가야 하는 욕망의 계기를 제공한다. 이 부분에서 김탄과 차은상의 사랑을 일깨워주는 인물은 김탄의 약혼녀인 유라헬이다. 그녀의 악행은 김탄에게 차은상을 더 보호하게 만들고 그리워한다

는 것을 각인시킨다. 차은상에게도 김탄이 약혼녀보다 자신을 좋아한다는 사실을 알게 한다. 차은상과 김탄은 자신이 처한 환경에서 벗어날 수 없는 동질성을 가지고 있다. 한 사람은 상류세계에서 다른 한사람은 더 이상 비참할 수 없을 것 같은 생활의 바닥을 보여주며 자신만을 위한 꿈을 꾸는 것이 불가한 상황은 다르면서도 같은 닭은꼴이다. 차은상은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 맞추어 살아가는 인지적 주체이며 거시적으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행위를 수행하는 존재이다. 차은상에게 욕망의 축은 김탄과 함께 오는 신분상승으로 볼 수 있다. 이 두 관계는 수동과 능동의 관계로도 설명되는데 주체인 차은상은 수동적인 능동의 형태를 지니고 있고, 김탄은 능동적이나 수동적인 형태이다. 이러한 형태에서 나타나는 관계는 쌍방향적 결속관계를 보여준다.

2) 발신자와 수신자

전달의 축을 이루는 발신자와 수신자의 관계는 차은상에게 미국으로 가게 만드는 언니의 결혼에서 발생한다. 차은상에게 언니는 사랑이며 롤모델인 동시에 자신이 언니처럼 하지 못하는 행동에 대한 분노와 부러움의 대상이다. 이러한 전제 조건은 주체에게 욕망을 불리일키고 행동하게 만든다. 더 이상 지긋지긋한 현실에서 벗어나 다른 세계로 가고자 하는 욕망의 돌파구로 존재하는 것이다. 하지만 언니에 대한 환상이 깨지고 배신당하는 사건은 주체에게 더욱 커다란 욕망을 발신하는 역할을 한다. 가장 바닥인 순간에 낯선 이국에서 김탄과 자연스럽게 만나는 계기가 됨으로써 주체에게 발신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3) 협조자와 반대자

주체에게 위기의 상황에서 도움을 주는 협조자는 윤찬영이다. 미국에서 김탄과 약혼녀 사이에서 불편한 관계에서 도움을 주고 항상 든든한 조언을 하는 협조자이다. 협조자도 계곡고에서의 신분은 사회배려자로 주체와 같은 위치에 있으나 그 세계에서는 인정받고 있으며 메가 엔터테인먼트 상속자의 남자친구이다. 주체에게 적대자이자 협조자는 최영도이다. 그는 주체에게 욕망하는 대상에 대한 정보와 그의 사랑을 확인시켜주는 존재이다. 김탄과 최영도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쌍방향적인 대립관계에서 발생하는 욕망의 축에는 주체에 대한 사랑이 있

다.

반대자는 주체의 관점에서 이접된 관계이다. 주체의 욕망의 축에 걸쳐져 있는 것은 김탄의 약혼녀인 유라헬이다. 그녀는 김탄과 합법적인 관계이자 그 세계에서 강력한 힘을 가진 자로 나타난다. 주체가 욕망하는 대상을 얻기 위해서 반대자는 반드시 제거되어야 하는 존재이다. 주체는 반대자(유라헬)에게 많은 모욕적인 사건을 당하게 되는 지점에서 협조자(최영도)의 도움으로 벗어나게 되어 진다. 이렇게 수동적으로 협조자에게 도움을 받는 처지에서 반대자가 만들어 놓은 함정에 맞서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순간 주체는 반대자를 제거하는 동시에 욕망하는 대상을 얻는다.

2.2 주군의 태양

1) 주체(sujet)와 대상

<주군의 태양>에서 원하는 욕망을 이루어가는 주인공은 태공실이라는 캐릭터이다. 태공실은 사고로 인해 귀신을 보는 능력이 생기면서 고립되어 살아가는 캐릭터이다. 귀신으로부터 도망치듯 살아가는 주체에게 있어서 욕망은 무서운 귀신으로부터의 해방이며 잠을 폭 자는 것이다. 이것을 가능하게 만들어 줄 대상으로 주중원이 나타나는데 그는 여자 친구의 배신으로 정신적 충격으로 난독증이 있는 결함을 가지고 있는 자이다. 으며 상으로 나타난다.

2) 발신자와 수신자

전달의 축을 이루는 발신자와 수신자의 관계는 태공실에게 밤낮으로 나타나는 귀신들이다. 귀신들은 주체에게 그들에게서 벗어나고 싶은 간절한 욕망을 나타낸다. 귀신들은 주중원이 나타나면 태공실에게서 사라지는데 이는 태공실로 하여금 앞 뒤 상황에 상관없이 대상에게 적극적으로 매달리는 행동으로 나타난다. 또한 귀신들은 사건 속에서 자신들의 문제들을 그들의 문제로 만들어가기도 하면서 주체와 대상 사이를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귀신들은 수신자인 태공실에게 항상 도움을 요청하고 해결하게 만드는 과정에서 태공실은 위험에 빠뜨리기도 하지만 사건 해결 과정에서 항상 주중원의 도움을 받게 만든다. 또한 주중원에게 생기는 사건 해결에서 어려운 사건이 생기면 귀신들의 도움을 이 등장한다.

3) 협조자와 반대자

주체에게 위기의 상황에서 도움을 주는 협조자는 김 귀도이다. 주중원이 가장 믿고 의지하는 인물로 주체와 대상 사이에서 항상 주체 편에서 대상에게 조언을 하는 직접적인 협력자이지만 주중원의 여자 친구로 인해 의도적으로 한 접근한 인물이다. 반대자이자 협력자인 강우는 주중원의 아버지가 고용한 인물로 주중원에 대한 감시를 하면서 태공실과 가까워지며 도움을 준다. 반대자로는 고등학교 동창인 태이령으로 태공실에게 열등감과 시기심이 많은 인물이다. 하지만 주체가 대상으로 향하는 가장 큰 반대자들은 귀신들로 나타난다. 이 귀신을 보지 않아야 주체가 욕망하는 것들을 찾게 되는 것이다.

2.3 너의 목소리가 들려

1) 주체(sujet)와 대상

<너의 목소리가 들려>에서 사건의 중심에 있는 인물은 장혜성이라는 캐릭터이다. 장혜성은 국선 변호사로 가난하고 억울한 이들을 변호하는 인권의 수호자이다. 하지만 현실에서 가난하면서 착하지도 않은 피고인들을 대하면서 진실이 재판에서 이기는 게 아니라 재판에서 이기는 것이 진실인 국선 변호인으로 변모되었다. 이러한 주체에게 법정에서 꼭 이겨야하는 대상으로 서도연 검사가 등장한다. 변호인과 검사로 만난 이들의 관계는 복수의 플롯으로 관계지어져있다. 서도연에게는 검사로서는 생각하기도 싫은 치욕스러운 사건의 중심에 혜성이 있었고, 혜성에게는 자신의 미래를 망친 원흉으로 관계지어진다.

2) 발신자와 수신자

전달의 축을 이루는 발신자는 박수하의 아버지를 살해한 현장을 목격한 증인인 장혜성과 서도연에게 법정 증언 사건의 발단이 된다. 그는 장혜성의 증언으로 10년형을 받고 증오와 분노로 복수를 하는 인물로 주체에게 작용한다. 발신자는 수신자에게 반대자와 협조자를 모두 제공하게 되며, 주체는 발신자로부터 오는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그의 트라우마와 욕망, 그리고 자신의 주체성을 회복한다.

3) 협조자와 반대자

주체에게 위기의 상황에서 도움을 주는 협조자는 박

수하이다. 그는 장혜성이 증언했었던 살해된 피의자의 아들이며 상대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가진 고등학생이다. 그는 장혜성을 자신의 영웅으로 사랑 하는 인물로 형편없는 세속에 물든 변호사인 주체에게 두려움과 맞서 증언하던 예전의 주체로 변화시키는 역할과 발신자인 민준국에게서 주체를 보호하는 협력자이다. 반대자는 주체에게 악연으로 작용하는 서도연 검사이다. 그녀는 주체에게 거짓 증언을 하였고, 목격자 사건의 증언에서 도망치는 파렴치한 인간으로 인식되어 있지만 검사이다. 변호사인 주체는 이러한 검사에게는 자질이 없다는 생각이 행동으로 나타나며 당연히 이겨내야 하는 대상이다. 하지만 주체에게 서도연검사는 항상 위에서 군림하며 주체에게 반대자의 위치에 서게 된다. 하지만 이 반대자와 주체는 정의 앞에서 다시 진실과 마주하는데 이 사건에서 서도연 검사는 반대자에서 협조자의 관계로 바뀌면서 사건을 해결한다.

4. 결론

이 연구는 SBS 드라마에서 나타나는 등장인물들의 의미론적 대립과 모순, 그리고 의미들의 상호작용을 그레마스 행위소 모델을 통해 분석하였다. 주체와 대상의 관계에서는 세 작품에서 나타나는 주체가 가지고 있는 결핍현상은 과거에 이루어진 행동의 결과로 사랑하는 이 들로부터의 배신으로 나타난다. <상속자들>과 <주군의 태양>에서 나타난 대상은 과거에 사건과는 관계없는 인물로 우연하게 만나는 새로운 세계와의 조우이지만 대상이 가지고 있는 결핍구조를 살펴보면 환경은 다르지만 비슷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가지고 있다. <너의 목소리가 들려>는 과거의 사건 속의 인물과 관계가 이루어지는데 주체와 대상의 결핍은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다. 주체에게 결핍으로 남아있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대상과의 쌍방향적 결속관계가 이루어지고 이 과정에서 새로운 욕망인 사랑이 나타나며 결국 궁극적인 보물을 획득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세 작품에서 나타나는 발신자는 <상속자들>과 <너의 목소리가 들려>에서 발신은 사랑하는 이 들로부터의 배신으로 시작되었고, <주군의 태양>에서 나타난 발신자는 산에서 조난으로 영혼이 떠돌아다닌 결과로 다시 현실로 돌아 왔을 때 귀

신을 만나면서 우연한 발신자이다. 발신자는 수신자인 주체에게 대상으로 향하게 하는 발단을 마련하는 사건으로 작용하였다. 세 작품에서 나타난 협조자는 모두 대상이 속해있는 측근으로 나타났으며, 반대자들은 협조자의 관계로 바뀌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서로 다른 장르에서 나타나는 드라마 속의 등장인물 관계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로는 같은 사건에서 시작된 발신된 주체와 대상의 결핍 구조는 다른 반면, 우연한 사건으로 인한 주체와 대상은 같은 결핍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은 주체와 대상의 연결 관계를 파악하기 쉽게 하였다. 발신자들은 주체에게 보다 더 권위적인 인물로 설정되어 평가한다고 하는데 여기서 나타난 발신자들의 위치는 주체보다 나약하고 보호 받아야하는 불쌍한 인물들로 설정되었을 때는 극중 역할이 제한적이지만 발신자가 주체에게 적대자로서의 역할을 같이하는 구조에서는 주체보다 권위적이었다. 세 작품 속에서 나타난 반대자들은 결국 주체와 대상에게 또 다른 협력자들로 변절하며 사건 해결에 도움을 주며, 불행해지기보다는 한결 더 성숙해지는 경향이 있었다.

ACKNOWLEDGME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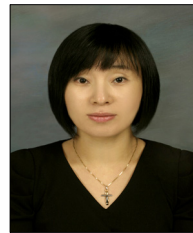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research grant of the Yewon Arts University in 2014.

REFERENCES

- [1] Hwan-Pyo Kim, Drama, Mince Korea, Figures and Thoughts, 2012
- [2] WoonJoo Lim, A Study of 'Greimas' semiological Approach in animation character, Applied koreacontents Vol. 9, No. 5, pp. 99-106, 2009.
- [3]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kmi&arcid=0008151672&cp=du>)
- [4]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kmi&arcid=0008151672&cp=du>)
- [5] http://reviewstar.hankooki.com/Article/ArticleView.php?WEB_GSNO=10169921)

- [6] Söng-do Kim(2002), With emotion in the structure, a publishing department Korea University, 2002
- [7] A. J. Greimas & J. Courtés, Sémiotique - Dictionnaire raisonné de la theorie du langage (Paris:Hachette),1979
- [8] A.J. Greimas & J. Courtes, Dictionnaire, 1970
- [9] Myeong-gwang Gwon·Hang-Sic Sin, Advertising Communication and Semiotics, Literature and boundary Inc, 2003
- [10] <http://www.jmmsweb.org/issues/volume1/number3/pp235-249>

임 운 주(Lim. Woon Joo)



- 1991년 2월 : 덕성여자대학교 산업미술학과(미술학사)
- 2006년 8월 : 홍익대학교 애니메이션학과(미술학석사)
- 2005년 2월 : 홍익대학교 영상학과(미술학박사)
- 2014년 8월 ~ 현재 : 예원예술대학교 애니메이션학과 교수

- 관심분야 : 영상, 애니메이션, 게임
- E-Mail : redprism@hanmail.net